



전주대 태권도학과, 전국체전서 4개 메달 획득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은, 동 3 등 4개의 메달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 장흥군에서 7일간 진행됐다. 특히 태권도 경기는 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가 지원해 총 49개(정식종목 47개/시범종목 2개) 종목으로 약 30,000명이 참가했다. 이에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총 4명의 학생이 입상했다. 4학년 금가는 -49kg 2위, 2학년 최주안 -54kg 3위, 2학년 박승겸 -80kg 3위, 2학년 최준표 -87kg 3위 등이다. 금가는 학생은 "최광근 교수님과, 김정균 감독님의 열정적인 지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최주안 학생은 "감독님 대표선수들과 함께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훈련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제45회 전국양봉인의날·벌꿀축제 성료

'제45회 전국 양봉인의날·벌꿀축제'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정읍시 내장산문화관광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1만여 양봉농가가 참여해 양봉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다. 또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18일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의 양봉농가와 양봉협회,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하는 양봉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내장산문화관광에서는 양봉인노래자랑 초청가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19일에는 기념식이 진행돼 전국 우수 양봉인들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전달 이와 함께 양봉인 체육대회가 이어져 단합력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구로구,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진행

남원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구로구 청소년 15명을 초청해 남원시 청소년 15명과 남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문화를 탐방하는 교류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류 행사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각 15명(총 30명)을 선정, 자매도시의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21박 2일간 일정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환영 행사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마음을 열고 이후 예천 화안당, 광한루원, 항공우주천문대 탐방을 하고 다음날에는 인원 사과농장에서 사과따기 체험으로 남원의 문화와 농촌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백운면 지사협, 어르신 우울예방나들이사업 추진

진안군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희곤, 이보순)는 가을을 맞이해 지난 20일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들과 나들이사업 '청춘 한마실' 추진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어르신 나들이 사업은 백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녀의 부재 등으로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드리고자 마련된 복지사업이다. 이날은 어르신 10명을 모시고 임실 관촌 사선대와 치즈메마파크 산책 및 체험을 즐겼다. 특히 이날은 위원들과 어르신들 1:1로 매칭해 함께 다니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참석 어르신들은 "답답한 집에만 있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바람도 쐬고, 관광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을愛 행복한데이(Day)'

남원시보건소, 재활운동실 이용자 위한 가을 나들이 '큰 호음'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운영하는 재활운동실 이용자를 위한 가을 나들이(전주수목원 방문)를 진행하며 그 가족들과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23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재활운동실에 등록된 장애인 45명과 가족 45명 등 90명이 참여한 '가을愛 행복한데이(Day)'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이날 행복한데이(Day)는 지역중심 재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남원의료원 공공의료팀과 시 보건소 방문보건팀(팀장 정희연)이 연계해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심으로 조성된 전주수목원에서 친목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연 속 휴식 나들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즐겁게 어울리



며 소통하는 재활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지역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재활운동실 운영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가족들의 자조모임 운영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사업 △장애인 이모임 봉사, 건강검진 및 상담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한용재 소장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을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휴식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 제고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인배)는 23일 중앙체육공원 국화축제장 특설무대에서 '익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시의회 최중오 의장, 소상공인 관련 기관장 소상공인,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 31명에게 익산시장 표창과 익산시의회회장, 국회의원,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해 그간 공로에 감사를 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축사에서 "고급 및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보탬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식 시작 전후로 소상공인 노래자랑 예선 및 본선, 초대가수 초청공연 등이 이어져 국화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한편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7월 6일 출범해 8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전주양현초·중 학생회 등,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진행

전주양현초·중학교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지난 21일 만성지구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300여 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만성지구 전체를 돌며 공원과 도로의 쓰레기를 치고, 또 학교와 학원이 주변에서 거리 흡연 자재 홍보 활동으로 진행했다. 이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도 현장에 나와 학생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 캠페인은 주변 학교까지 영향력을 끼쳐 인근 만성중학교와 은빛중학교에서도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전주양현중 이시우(1년) 학생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봉사할 수 있어 뿌듯하고, 앞으로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경준 전주양현중 학부모회장은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학교 학부모들의 자발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돼 퍼져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관 부안 바다저갈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23일 부안군 청정바다저갈 안병관 대표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에 새우젓을 납품하면서 무주군과 인연을 맺게 된 안병관 대표는 "해마다 여섯달에 회원여러분이 찾아주시는 덕분에 무주군 지역에도 입소문이 많이 났다"며 "고향사랑 기부로 무주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 보람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부안 곁소향에서 각종 것갈류와 견어물을 판매하고 있는 청정바다저갈은 1999년에는 정보통신부 우편주문판매 상품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04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입점을 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새우젓을 납품한 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무주군에 장학금(총 3백만 원)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총 2백만 원)으로 기탁해 훈훈함을 나누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부설초, 진로체험활동 실시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21일 4학년 3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진로체험은 4학년 사회 교과와 연계해 이뤄진 것으로, (주)친한 F&B와 (주)기드밀에 이사로 재직 중인 4학년 3반 학부모인 남기환님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시지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또 공장 내 CCTV를 보면서 생산 과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맛있는 소시지 키트도 선물로 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기환 학부모(주)친한 F&B와 (주)기드밀 이사는 "4학년 3반 친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기획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제16회 평생학습축제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는 지난 22일 천변어린이체육장 일대에서 '정읍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다. 개막식은 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한 평생학습동아리 1개소와 평생학습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 분야에는 지난 11년간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 제능가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온 '한지사람'이 수상했다. 평생학습인 분야에서는 시 모뎀배움터 매니저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이수아 씨, 덕천면 모뎀배움터 유지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하마을 이장 최길심 씨, 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로 7년 이상 시민들의 자기개발을 도운 옥세진 씨가 수상했다. 개막식이 끝난 이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19개 팀의 악기 연주·댄스 등 수강생들이 그간 갖고 있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 마련된 홍보채널에서는 무지개동아리 등 32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남녀노소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부설초, 참관실습 성료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16~20일 일주일 간 전주교육대학교 2학년 54명이 교생 참관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실습은 학교 현장의 모습을 관찰하고, 교직에 대한 적성을 파악하며 예비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54명의 교생은 군산부설초의 교육 방침에 따라 학생들을 보호하며 수업 관찰을 통해 예비교사의 역할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생들은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각 학급 학생들과 함께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또 수업 협의 시간을 통해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 방법 등 교직의 생생한 후기를 들었다. 특히 실습기간 동안 독서토론회 및 북우울하기 대회, 팔마동산 종합학술포럼 리허설을 참관하며 학교행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저학년과 고학년 간 교차 수업을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모습을 관찰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김신철 교장은 "54명의 예비교사 모두 성실하게 실습에 임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장안산서 '플로깅' 활동 전개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 임직원들은 21일 전북 천리길 '장안산 마실길 걷기 행사'에 동참해 '플로깅'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군 주최 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 주관으로 장수읍 덕산 지실거리와 계남면 지소골 일원에서 진행된 전북 천리길 '장안산 마실길 걷기 행사'에 정영선 지부장과 임직원들이 동참했다. 이날 군지부 임직원들은 지역주민들과 타 시·군 참가자들과 장안산 마실길 구간을 함께 걸으며 등산로에 버려진 비닐, 물병 등 오물과 쓰레기를 플로깅하며 청정 장수군 이미지 보존활동에 앞장섰다. 정영선 지부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전북 천리길 '장안산 마실길 걷기 행사'에 동참해 장안산 자락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도 느끼며, 등산로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플로깅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장수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은 청정 장수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활동에 앞장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